

광주, 역대 최고 신규사업 반영...전남, 남해안 철도 등 숙원 해결

어디에 얼마나 확보됐나

연구개발 특구·U대회 운영비 증액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100억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사업 상당수가 국회에서 되살아나거나 증액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민선 6기 첫 예산 확보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시민단체 출신인 윤정현 광주시장과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낙연 전남지사의 적극적인 행보에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유례 없는 '예산 따기 합작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광주·전남 상생을 전명할 운 시장과 이 지사는 취임 직후 2015년 예산 쟁기에 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국회를 찾아가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까지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만 챙기기도 하는 다른 지역도 배려하면서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미래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따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 신규 사업 확보=광주시는 정부안과 국회 심의에서 신규사업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반영돼 향후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신규 사업 예산 확보로 지역현안 사업의 추진과 재정운영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5년 신규 사업으로 58건 1455억원(정부안 48건 1,365억원, 국회심의추가 10건 90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 44건 572억원보다 14건, 액수면에선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주요 신규사업은 ▲100G급 초고속 광모듈 부품 상용화 기술개발 ▲국가 고자기장센터 설립 ▲무등산 방송·통신시설 통합 사업 ▲광주연구개발 특구 육성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무각사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용두~담양대전간 도로확장 등이다.

특히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조경광 고강성 차세대 사부품 기술개발과 광주 연구개발특구 육성, 치과

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 CT연구소 독립정사 신축, 호남학 호남진흥원 건립 등이 반영되는 성과도 냈다.

이 밖에도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광주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 환경 개선, 외국인근로자센터 건립, 트라우마센터 건립, 전남대병원 노후병동 개보수 및 노후의료장비 구입 지원, 전남대 대강당 리모델링 등도 신규 사업 예산으로 확보했다.

시는 또한 이번 국회예산 심의 과정에서 U대회 운영비를 애초 292억원에서 130억원이 추가된 422억원으로 증액하는 데 성공했으며,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사업도 45억원을 추가한 170억원을 확보해 자동차 밸리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남해안 철도·광주~완도간 고속도로 등 숙원 사업 반영=전남도는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건설과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반영되면서 국토 남단의 동서와 전남도의 남북을 연결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재정정상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 용역 중에 있던 SOC 및 R&D사업 중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전체사업비 1조4247억원)에 100억원,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1300억원) 25억원, 전남 뿌리기술지원센터 연구기반 구축사업(240억원) 5억원 등이 당장 내년부터 투입될 수 있게 됐다.

사업 타당성 미흡으로 지난 2007년 공사가 중단된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건설사업에 50억원이 반영되면서 7년 만에 공사가 재개된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광주~해남) 실시계획비 100억원도 반영됐다. 69.6km의 구간에 사업비는 1조4247억원에 달한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위한 설계비 25억원도 국회에서 살아났다. 이외에도 전남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최초 반영액 5억원), 과학로봇센터 건립(10억원), 흑산도 여객터미널 신축(36억원), 목포항 진입항로 준설(35억원), 광양 세풍~중군 6차로 건설(20억원), 울촌 제1산단 진입항로 준설(8억원) 등도 내년부터 설계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2일 국회 분회의장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부터), 이완구 원내대표가 야당석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유운근 원내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1106억원 증액 만족할 만한 수준”

이윤석 “영남에 비하면 포크레인 앞 삽질”

광주·전남 국고예산 놓고 입씨름

광주·전남 내년 국고 예산 확보를 놓고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위원장인 이윤석 의원(무안·신안)과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정현 의원(순천·곡성)이 극히 상반된 시각을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내년 국고 예산 확보에 대해 “대만족”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은 “평년작 수준”이라며 평가 절하했기 때문이다.

우선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에서 신규 반영 내지 증액한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국고예산은 90여개 사업에 1106억원”이라며 만족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 의원은 지난 재보선에서 내세운 예산 폭탄 공약과 관련해서도 “예산 폭탄의 기준이 애매하지만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액한 예산은 항목별로 ▲SOC 393억원 ▲농림수산 70억원 ▲문화·관광 182억원 ▲산업, R&D 375억원 ▲지역개발 86억원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광주·전남지역 예산 확보의 가장 큰 특징은 여당의 지역구 의원인 저와 유운근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 황주홍·김동철 의원 등의 이해와 협조가 활발했다는 점이다”며 “특히 실질적인 지역 발전과 미래 대비, 먹거리 창출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목포~보성 간 철도 재착공 사업과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끌어온 수년간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예산 ▲도로·항만 등 SOC분야의 신규 예산 ▲관광·농림·수산분야의 진흥을 위한 예산 ▲광주·전남을 번오시킬 새로운 지식융합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등의 확보를 성과로 꼽았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 전남도당위원장인 이윤석 의원은 “평년작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결과”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윤석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국고 예산과 영남의 국고 예산을 비교하면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남은 여당을 기반으로 정부 예산안에 지역 국고 예산을 촘촘히 반영해놓고 국회 증액에서도 다시 예산을 쟁겨간다”며 “반면, 호남은 정부안에서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국회 증액 심사에서 일부 반영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호남과 영남의 국고 예산 반영 규모를 비유하자면 ‘포크레인(영남) 앞에서 삽질(호남)하는 격’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지역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년 지역 국고 예산 규모는 그가 공언했던 ‘예산 폭탄’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예산 폭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식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인신사 예산에서 호남을 배려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내년 국고 예산과 관련, 지역 정치권이 만족하기 보다는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박지정기자 tuim@kwangju.co.kr

담뱃값 2000원 인상...예산 부수법안도 본회의 처리

여야는 새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오후 늦게 협상에 성공,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담뱃값은 한 갑당 2000원씩 증량세 방식으로 인상했다.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내용의 물가연동제는 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경고그림 게시 부분도 삭제한다.

새정치연합이 반대한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하는 대신, 기업상속공제의 사전경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최대주주 지분 비율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기로 했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제 공제율을 109분의9인 현행 공제율을 2년간 더 연장했으며 농협과 수협 등 조합법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특례의 경우 20억 원을 넘기는 경우 12% 세율을 매기도록 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도록 했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2016년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2017년부터는 분리과세하도록 했다. /박지정기자 jkpark@

화순아울렛
밀레·라푸마
OPEN!!

패션은 옷으로 하는 자기소개다
그러므로 라푸마를 입었다면 당신은
가장 스타일리쉬한 자기소개를 한 셈이다
이것이 라푸마 이펙트

Lafuma Effect

COLDZERO

빈틈없이, 온기를 잡았다.
본체선의 통을 두겹의 패딩테이프로 덧대
방기를 차단하고 온기를 유지시키는 밀레만의 다중 산기술

COLE AIR DOWN ISOTHERM FROM TUBE WARM AIR COLDZERO 공명

Lafuma

MILLET 061-371-7337
010-8288-3579

Lafuma
061-375-8998
010-3618-9615

OPEN AM10:00 / CLOSE PM09:00 화순현대병원건너편